



우리가 만드는 더불어 사는 세상



행복통장을 만들어요.

복될 일을 많이 만드십시오.

행복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빌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일로는 봉사만한 것이 없습니다.

봉사는 이웃을 돕는 일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행복을 저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행복 통장을 만들어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도울 줄 모릅니다.

봉사가 없으면 행복 통장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불행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이런 관찰이 도움이 됩니다.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자연현상과 나는 한 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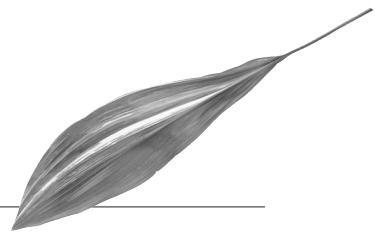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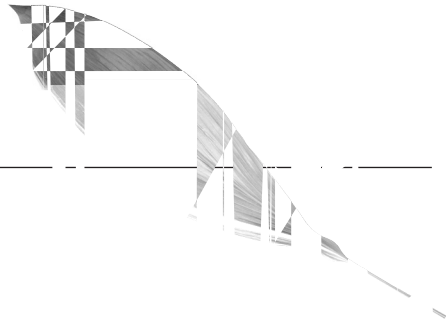
내 이 한몸은 수억만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저들과 주고받으면서 존재해 왔고

또 그렇게 생존해 갈 것입니다.

우주 속의 모든 존재(동물*식물*무*유성물)들은 나와 연결된 하나라는 사실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이란 없을 것이며 봉사의 귀결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당신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손길나눔 2004년 봄



손길나눔은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 발행처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 발행일 : 2004. 3 • 비매품 • 편집·디자인 : 신세계 커뮤니케이션즈 Tel.(042)636-8955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지요?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40번지 2층에 있지요!
음~ 그리고 소식지 맨 뒤를 보세요. 약도가 그려져있어요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__^



무슨 일을 하는 곳인데요?

1. 청소년봉사활동 수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2. 청소년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4. 청소년봉사활동 기록유지 및 관리, 확인서 발급
5. 청소년육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6.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지역사회발전 운동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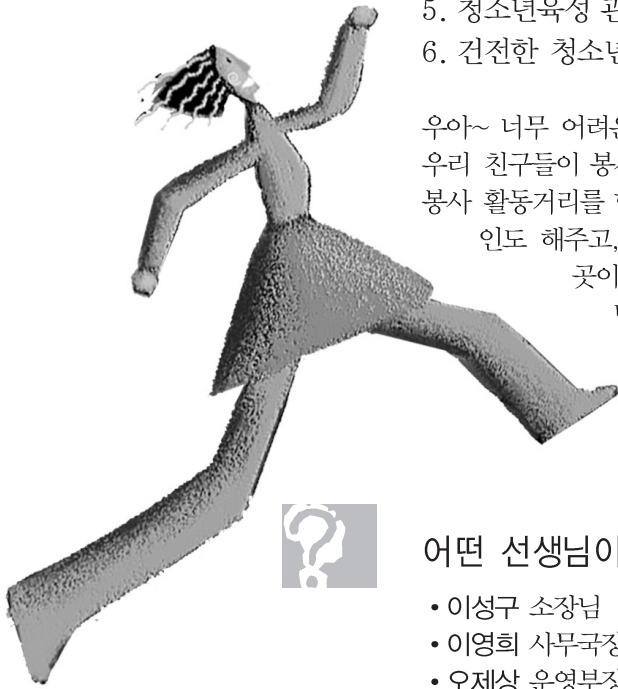
우아~ 너무 어려운 말이당~ ㅋㅋㅋ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원 봉사 활동거리를 함께 계획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한 봉사활동을 확 인도 해주고, 우리동네, 옆동네, 아래동네, 윗동네에 혹시 봉사활동 할 곳이 있는지... 도움드릴 분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지요! 또 청소년 행사나 캠페인 등을 통해 우 리고장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모습을 홍보하기도 해 요~ 음! 그리고 봉사활동이란 무엇인지 ~ 학교에서 교육도 한답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자원봉사 소양교 육 때 만날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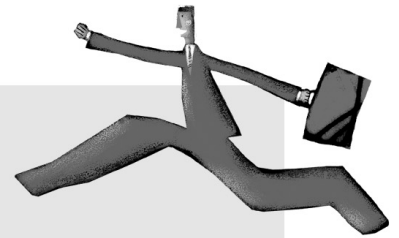


어떤 선생님이 계시지요?

- 이성구 소장님
- 이선열 운영요원
- 성낙인 인턴
- 이영희 사무국장님
- 김영이 운영요원
- 김성국 인턴
- 오제상 운영부장님
- 한난신 운영요원
- 홍현주 인턴
- 이영미 행정요원



2004년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2004년도 활동사업 소개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시기
전국 공통 사업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터전인증제시행	활동터전 발굴, 등록, 인증서수여, 배치, 소양교육 등	연 중
	청소년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도입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정보화운영	봉사카드발급, 마일리지전산관리, 운영비, 인센티브 부여 등 homepage 제작 및 운영	연 중
	전국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박람회	우수동아리 3개 팀 선정 박람회참가	10월
	전국청소년자원봉사자 해외봉사단운영	봉사자, 관계자 등 선발 센터별 8명(전국센터연계사업)	8월~9월
목적 사업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부문별 60여명 시상	10월~11월
	청소년자원봉사 우수동아리 활동지원	동아리지원 25개 동아리(50만원×25개)	3월~11월
		동아리 리더교육	4월
	청소년아르바이트 운영 활성화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구인, 구직, 등록, 알선, 현장 체험 등 도내 중·고등학생	3월~12월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전문성 강화	지도자연수 - 교사 및 학부모	3월
		청소년자원봉사소양교육 - 도내 중·고교	3월~12월
		운영위원회운영	연 2회
대학생지도자연수 - 연 2회		연 2회	
시·도 센터 특성화 사업	청소년 문화체험, 환경보호봉사활동	문화체험/지역축제/환경정화/시설견학 등	5월~12월
	장애우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캠프	레크리에이션/소풍/체험활동/목욕봉사활동/유락시설이용	7월~8월
	농·어촌 체험 자원봉사 활동	작목별 농가 일손돕기/해변정화/염전체험/팜스테이/ 자연재해농가 돕기 등	4월~11월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봉사활동	위문공연/ 장애우와 함께 나들이/김장 담아주기/ 반찬만들기	3월~12월
	지역교류활동	타 국가·시·도와 지역교류	7월~8월
	사업보고서 제작	사업보고서 제작	12월
	기타	손길나눔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 발송
확인서 발송		봉사활동자 확인서 발송	연 중





공주시

동아리

- 봉사활동 동아리 '초원의 빛'
- 공주고등학교
- 봉사활동 동아리 '썬샤인(sunshin)'
- 공주여자고등학교
- 프라모델동아리 '이카루스 밀러터리 아카데미'
- 공주고등학교
- 댄스동아리 'GENESIS'
- 공주여자고등학교
- 연극동아리 '깊은 여운'
- 금성여자고등학교
- 패션관련동아리 '아틀란티스'
- 공주여자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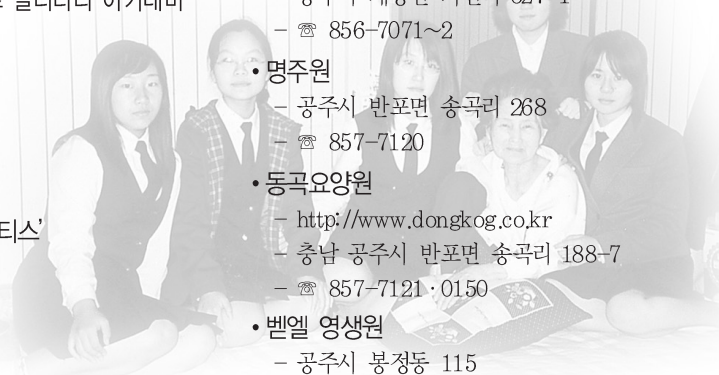
청소년이용공간

- 공주청소년문화의 집
- 공주시 반죽동 150-10 ☎ 858-3900
- 공주민속극박물관청소년수련실
-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357 ☎ 855-4933
- 웅진도서관
- <http://www.wjlib.org>

- 공주시 웅진동 300-9
- ☎ 856-0678, 850-4468

봉사활동터전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http://www.cnnrec.or.kr>
-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627-1
- ☎ 856-7071~2
- 명주원
-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268
- ☎ 857-7120
- 동곡요양원
- <http://www.dongkog.co.kr>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188-7
- ☎ 857-7121·0150
- 벨엘 영생원
- 공주시 봉정동 115
- ☎ 855-6342
- 금강사회복지관
- 공주시 옥룡동 123번지
- ☎ 856-6110~2



논산시

동아리

- 봉사활동 동아리 '예뼌'
- 논산여자고등학교
- 수화활동 동아리 '솔빛누리'
- 논산여자고등학교
- 춤·노래동아리 '날각쟁이'
- 썬뜰여자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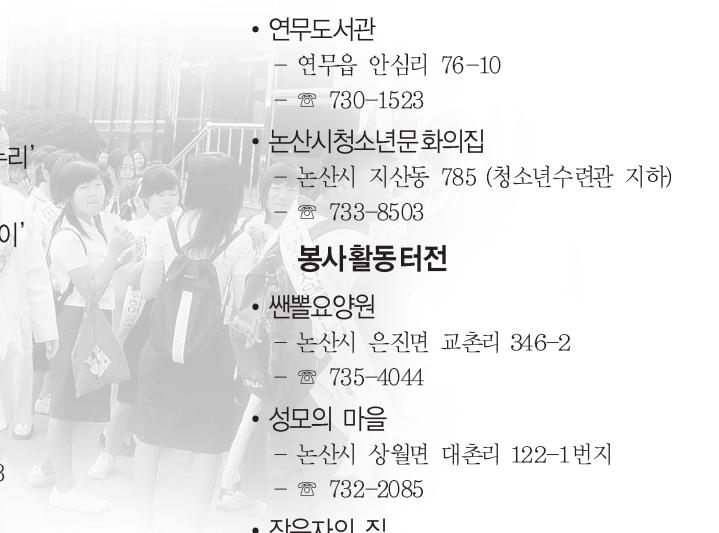
청소년이용공간

- 충청남도논산평생학습관
- <http://www.nsl.or.kr/>
- 논산시 부창동 77
- ☎ 관리부 : 736-7153
- 강경도서관
- 강경읍 남교리 81-3
- ☎ 745-2396

- 연무도서관
- 연무읍 안심리 76-10
- ☎ 730-1523
- 논산시청소년문화의집
- 논산시 지산동 785 (청소년수련관 지하)
- ☎ 733-8503

봉사활동터전

- 썬뜰요양원
-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346-2
- ☎ 735-4044
- 성모의 마을
-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122-1번지
- ☎ 732-2085
- 작은자의 집
- 논산시 은진면 교촌2구 284
- ☎ 741-7097



알기쉬운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 아이들의 권리, 세계의 약속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1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3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7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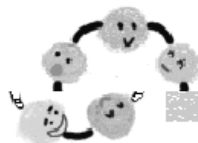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2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10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좋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14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13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15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17조)

있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16조)

유엔 (1)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19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22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 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지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 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29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3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4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28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21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 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27조)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1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벌다면



우리는 벌을 버리는 비용을 받들고 피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33조)



우리는 벌을 버리는 비용을 받들고 피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33조)

큰 잘못을 저지러 수가 있다. 하지만 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양벌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특히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으로부터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7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34조)



우리는 큰 잘못을 그렇게 상처를 최후의 벌 감옥에 만일 감 감옥에서 정기적

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권리가 있다. (39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3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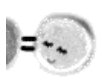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35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 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1. 북한에서 체력장은 어떻게 치르나요?

북한은 고등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민체력 검정」을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인민체력검정을 실시하는 기간은 8~9월 사이이며, 종목은 턱걸이, 달리기, 높이뛰기, 수류탄 던지기, 줄오르기 등 20여 개입니다.

2. 북한에서는 대학을 몇 년 다녀야 하나요?

북한 대학의 학제는 학교 및 학과의 성격에 따라 4~6년제(예비과 1년 제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사회과학부는 5년제, 자연과학부는 6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고등전문학교는 2~3년제, 우리의 교육대학에 해당하는 교원대학은 3년제입니다. 또 연구원 과정은 2년, 우리의 박사과정과 비슷한 박사원 과정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위수여는 학교별로 하지 않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속의 조선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수여하며 시기는 부정기적입니다. 학위의 종류는 학사(우리의 석사)-준박사-박사-후보원사-원사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대학 졸업생에게는 학위

를 수여하지 않으며, 인문계통 졸업자에게는 “전문가” 자격증을 이공계통에는 “기사”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하며, 엄격한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고 합니다.

후보원사-원사는 학위논문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여하는 제도가 아니고 과학발전에 이바지한 학자들에게 주는 명예칭호입니다. 후보원사-원사는 우리의 학술원 회원과 같이 학계의 원로들에게 수여된다고 합니다.

3. 북한에서도 대학입시가 치열하나요?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대학입시를 거쳐 대학에 바로 입학하는 경우 “직통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수는 남학생의 경우 대학정원의 약 30% 정도라고 합니다.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직통생의 영광을 누리려면 1차적으로 시 행정위원회에서 “대학입학 자격자”로 선정되어야 본인이 원하는 해당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시는 하루 1~2 과목씩 약 3일간 수학, 물리, 외국어, 문학, 혁명역사 등에 대한 필기시험, 체력검사와 인물심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시험 시기는 전후기 구별없이 통상 7월중에 실시되며 약 1개월 후에 합격통지가 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대학정원의 30% 정도만 직통생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수재가 아니고서는 고등중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학생 진학자의 70%는 군에 입대해 4년 정도 좋은 복무기록을 보여야 대학입학 추천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제대자는 대체로 인문·사회계통의 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일반적인 군복무 기간은 13년인데 이보다 더 오랜 기간 복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군인입학자들은 군복무기간으로 인해 학과 공부에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학의 예비과 1년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직통생보다는 대학입학이 상대적으로 쉽긴 하지만 군복무 성적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학생들의 경우 군에 입대해야 대학진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4. 북한 학생들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세계 공용어가 되고 있는 영어, 중국과의 교역에 꼭 필요한 중국어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70-80년대에는 북한의 공산권 중심 외교정책과 러시아와의 활발한 경제교역 영향으로 외국어 중에서 러시아어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의 해체와 함께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역·정치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러시아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그 대신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등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 과정도 과거에는 러시아어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 러시아어와 영어가 비슷한 비율로 채택되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고등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평양외국어대학에서도 영어과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

고 다른 어학 전공자들도 전공 언어의 제2외국어로 영어를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이후 중국과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무역·외화벌이 부문에서 중국어 요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중국어의 인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5. 북한의 영재교육학교는?

각지의 제1고등중학교 및 외국어 학원이 북한의 영재교육기관입니다. 특히 1984년 9월 평양에 처음 신설된 제1고등중학교는 지금 시(구역), 군까지 확대되어 2백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보다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혜택을 누리며, 졸업생들은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과, 이과, 의과대학에 곧바로 진학하는 이른바 “직통생(直通生)”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1고등중학교에서는 특히 물리, 수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평양의 모란봉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전국 수학올림픽 경연대회, 전국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영재교육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6년제, 10년제 외국어학원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은 80년대 중반에 러시아어, 영어 병행 교육을 영어 위주로 전환하면서 각 시·도에 외국어 학원을 설립·운영해왔는데 최근 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6. 북한의 방학생황

북한의 인민학교의 방학은 여름방학이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15일 정도이며,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45일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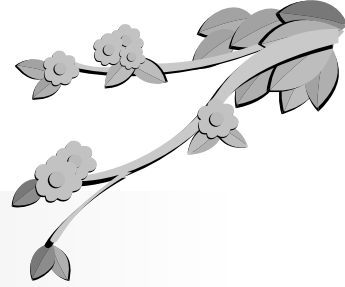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준 “방학동안의 일정표”에 의해 방학생황을 하는데 일정표의 하루일과에는 생활반(학급과 동네가 같은 6-7명으로 구성)끼

리 학교에 모여 아침달리기, 독서, 오전학습(방학 숙제)과 점심 후 오후 학습을 하게 되어 있으며, 매주 토요일은 소집일이라 하여 선생님에게 일주일 동안 한 숙제를 검사받게 되어있다.

방학중 소년단과 청년동맹에서 실시하는 조직 활동은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답사 등 사상교양과 수영, 야영 등 하계 체육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마 생산활동으로 토끼 기르기 등을 해야 합니다.

북한 학생들이 여름방학중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소년단야영소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모범학생으로 뽑히면 혁명사적지 답사활동과 산업시설·명승고적 견학, 자연관찰, 물놀이, 토론회, 예술공연 등의 활동

春音



황사란?

황사는 몽골의 고비사막에서 형성되어 이른 봄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황토인데, 최근에는 공업화된 중국대륙의 몸에 해로운 실리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등 중금속 오염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황사가 일으키는 질병들은?

- 황사에 많이 노출되면 목이 따갑고 아프며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 황사 때문에 목 감기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 눈에 자극성 및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켜 눈이 가렵고 따갑고 빨갧게 충혈됩니다.

철벽, 꼼꼼, 황사 대처법

【외출할 때 마스크는 기본】

마스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답답하더라도 꼭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매일 비누로 깨끗이 빨아 말려 사용해야겠지요.

【외출할 때는 긴소매 옷을 입는다】

중금속을 함유한 모래 먼지 속에서 피부를 보호하려면 가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주, 그리고 깨끗이 씻어라】

황사는 그냥 먼지가 아니라 유해물질 덩어리입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행구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소금물로 입안을 행구어 준다】

아무리 조심해도 입안에 황사물질이 들어가겠지요. 미지근한 소금물로 입안을 행구면 유해물질을 뱉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살균효과도 있어 좋습니다.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라】

평소에도 물을 자주 마시면 구강과 기관지 점막에 수분이 공급되어 오염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즙, 모과차, 오미자차, 녹차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이 특히 도움이 된다】

시력유지와 상피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타민 A가 많은 당근, 시금치, 상추가 좋고 가래를 억제하는 도라지, 알칼리성인 콩, 해조류 과일류가 좋습니다.

【집안청소 구석구석 닦아줘야 한다】

미세먼지는 창문을 꼭꼭 닫아놔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닥부터 가구까지 걸레로 꼼꼼하게 닦아주는게 좋습니다.

【적당한 환기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황사기간에는 문을 꼭꼭 닫아 놓아 공기가 탁해지고 건조해지기 쉬우니 잠깐씩 환기시키고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습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계청소년자원봉사주간 사업 (Global Youth Service Day)

-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금 청소년 걷기대회 -

- UNICEF 발표자료에 의하면 현재 북한 전체 어린이 중 60%가 만성 영양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육부진상태에 빠져있는 실정,
- 그간 일부 또는 성인 중심의 한정적인 대북 지원운동을 전국적인 청소년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걷기대회를 실시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이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
- 4월9일~12일,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을 기점으로 '전국청소년자원봉사 주간'을 설립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의 날(GYSD)이란?

☞ 매년 4월 셋째주 토요일을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여 전세계적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축하하는 기념일임

1. 실시기간 : 2004년 4월 18일(일) 08:30~
2. 장 소 : 논산공설운동장
3. 준 비 물 : 도시락, 물, 간식, 운동화 등(참가자)
4. 참가대상 : 20km를 걸을 수 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1,000명)
5. 참 가 비 : 무료(비가와도 걷습니다)
6. 문 의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736-9003,4)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청소년아르바이트(직업체험) 사전교육 안내

노동의 가치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근로기준법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위한 바람직한 소비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아르바이트문화형성과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1. 실시기간 : 2004년 3월 ~ 12월
2. 접수기간 : 2004년 3월 ~ 4월 30일
3. 교육대상 :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4. 교육인원 : 200명 내외(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5. 교육시간 : 1시간(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6. 교육내용 :
 - 가. 아르바이트의 의의
 - 나. 아르바이트 실행하기
 - 다. 아르바이트 마무리
 - 라. 연소자근로기준법 바로 알기
 - 마. 아르바이트 문제 해결
7. 기 타 : 아르바이트 사전교육은 출장강의로 이루어지며 강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8. 문 의 : ☎ 736-9003~4, FAX 733-1984 담당자 김영이
(신청서는 www.bongsai.or.kr에서 다운로드 활용 가능)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대안대학



녹색대학은 2001년 장희익 전 서울대 교수, 시인 김지하, 박노해씨, 문규현 신부, 환경운동가 장원씨 등 시민환경단체 인사 33명의 발기로 탄생했다.

등록금은 국립대 수준으로 자신의 형편에 따라 15% 안팎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할 수 있다. 학생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자급자족의 공동체 생활을 지향한다.

녹색대학에서는 녹색문화학, 녹색 살림학, 생명농업학, 생태건축학, 풍수풍류학 등 5개 학과를 기본으로 학생들의 결정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과목을 선정, 외부 강사를 초빙해 공부를 하게 된다.

녹색대학에서는 환경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구내와 환경운동

공동체, 그린네트워크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녹색화폐가 통용된다. 녹색화폐는 '원'과 1대1로 교환되며, 1000사랑·5000사랑·1만사랑의 3가지 종류로 발행됐다. 조폐공사에 의뢰, 30억 사랑어치를 제작했으며, 학생등록금 접수, 교수·교직원 월급 지급, 유기농산물 구입 등 대학구내 경제활동은 물론, 녹색 화폐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모든 곳에서 통용된다.

또 캠퍼스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3만평 규모의 생태마을, '청미래 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이 마을은 유기농을 기본으로 하는 자립적 생태공동체로, 농사 짓기 살림살이 품앗이 등 친환경적 삶을 시도한다.

고등 대안교육의 물꼬를 튼다

과거와는 달리 학교의 입지가 흔들림에 따라 지금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고등학교에서는 오직 '일류 대학가기'를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대학은 '취직 준비 학원'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교육의 실태를 조금씩 바꾸어 가려는 움직임이 쉬 없이 이뤄지고 있어 아직까지 교육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밝은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갈 대안책으로 '대안학교'를 꼽고 있다.

이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대안학교'들이 전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되는 분야나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고등교육의 대안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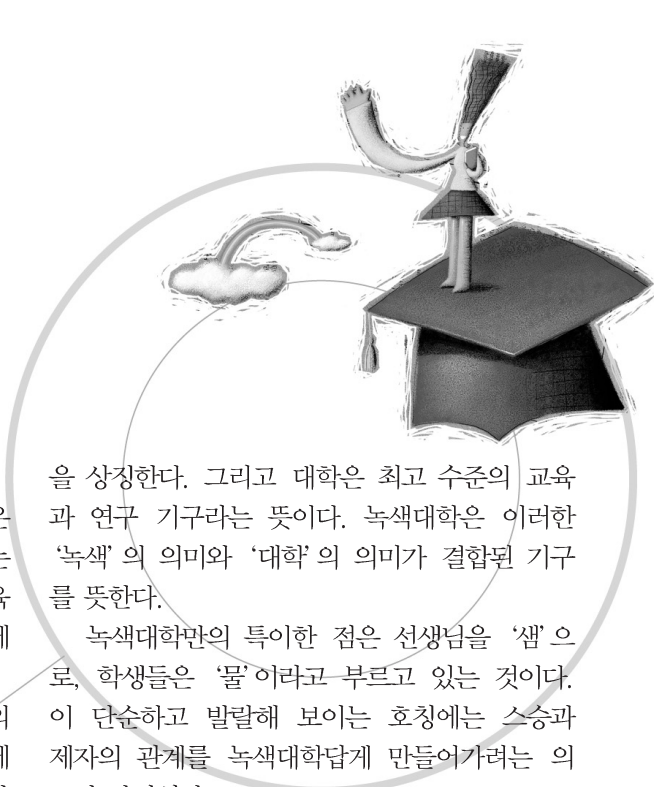
고 있는 대안학교는 주로 초·중·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 대안 교육의 물꼬를 튼 '대안 대학'이 개교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오매실마을에 위치한 '녹색대학'이 바로 그곳이다.

제도의 틀을 벗고, 본연으로 돌아가자

"일반 대학들은 이미 잘못 가고 있는 문명의 틀 안에 껴입되어 이를 오직 지속시켜 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대학은 이러한 틀에서 되도록 멀리 벗어나 새 문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에 맞는 새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녹색대학은 기존 대학들이 지나치게 제도의 틀 안에 갇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교육의 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 이에 맞는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할 방



침이다.

또한 학업 그 자체보다 사회적 위세가 높은 졸업장 혹은 자격증의 취득에만 관심을 모으는 현실속에서, 녹색대학은 정형화된 제도와 교육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진정한 내실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녹색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차별을 최소화한다. 학교 운영의 많은 부분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생활관 운영이라든가 기타 학생생활에 직결된 모든 것을 학생의 자치 활동에 맡긴다. 또한 교과목의 설정, 학습내용의 구성 등에도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습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능동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전교생이 생활관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학과목의 선정이나 학습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도 교수의 전문성보다는 내용의 적실성과 통합성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닌 협동을 지향하며,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오는 충동을 통해 성취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 학생 수를 소수로 제한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

‘쌤’ + ‘물’ = ‘녹색대학’

하고, 뒤처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들 서로 도와가며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고향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녹색은 자연과의 조화와 평화, 심신의 건강

을 상징한다. 그리고 대학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기구라는 뜻이다. 녹색대학은 이러한 '녹색'의 의미와 '대학'의 의미가 결합된 기구를 뜻한다.

녹색대학만의 특이한 점은 선생님을 '쌤'으로, 학생들은 '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 발랄해 보이는 호칭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녹색대학답게 만들어가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쌤'이라는 호칭에서는 흔히 '교수님'이라고 부를 때 은연 중이라도 갖게 되는 어떤 권위 의식도 느껴지지 않는다. '물'이라는 호칭 또한 생명의 근원인 물처럼 학생이 녹색대학의 근원이며 바탕이라는 의미가 느껴진다.

녹색대학의 가장 큰 혜택은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깎듯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기들 손으로 직접 재배한 완전 무공해 식품으로 만든 음식이 제공되고, 심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도 녹색대학만의 혜택이다. 또한 타대학과 비교해 등록금이 비교적 저렴하며, 어려운 학생은 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적절한 일거리를 얻어 비용의 일부를 충당 할 수도 있다.

금년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멋쟁이 카페를 곧 하나 만들게 된다. 이처럼 아직 시설이 미흡하지만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녹색대학의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녹색대학의 행보가 앞으로 대안교육의 미래를, 우리 교육계의 미래를 좀더 희망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녹색대학’ 장희익 총장님 인터뷰



국내 최초 건립되는 ‘녹색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임명된 장희익 총장님을 만나 보았다.

초대 총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요?

▷ 학교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한 철학을 가지지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의견들을 수용해낼 유연성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힘은 들지만 신명나고 보람이 느껴지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으며 우리 모두가 학생이면서 동시에 선생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문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나 자신부터 신입생이라는 기분으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대안대학을 건립하게 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다면?

▷ 크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일단 녹색대학이라는 가치를 들자 주변에서 필요한 모든 도움이 저절로 찾아들었습니다.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될 일꾼들이 스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어려움은 있었지요. 녹색의 이념에는 공감함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라져 이를 통합하는 일이 그 하나였고, 아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인재를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은 다 잘 풀려나간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학 수준의 대안 대학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초·중·고 단계의 대안 학교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들은 그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고생을 해왔는데 이제는 대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대안 교육에 대한 주변의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권 학교들에 비하면 그 숫자나 영향력 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나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교육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어려움을 마다하고 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교자의 길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순교자의 길은 한 두 사람은 갈 수가 있지만 모두가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럿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길이 아니라 신명의 길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명나고 보람된 가운데 참 교육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대안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푸드코디네이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릿고개'가 있었다. 지난해 가을걷이가 끝나고, 다음해 춘삼월이 되면 양식은 바닥나 버렸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수두룩했다. 일제 강점기 시대와 1950년대의 농촌상이다.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말이 되던 시절이었다.

지금 우리는 보릿고개를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의 식탁은 풍족해졌다. 단순히 '배부름'이 아닌, '분위기 있는, 고급스러운' 식생활로 변화했다. 이에 생겨난 직업이 푸드 코디네이터다.

'푸드 코디네이터'란 식탁을 좀더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다. 파티를 계획하는 '파티 플래너', 식탁 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테이블 데코레이션', '음식을 어떻게 예쁘게 담아낼까'를 고민하는 '푸드 스타일링'의 분야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보편화되지 않은 까닭에 이 모두를 푸드 코디네이터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 전문 교육기관이나 대학의 학과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기껏해야 식품영양학과에서 강의를 개설하는 정도죠. 프랑스나 이탈리아에는 사정하더라도 무척 많지요. 푸드 코디네이터 분야에선 미개척된 분야죠, 그만큼 기회 하구요."

문화원에서 강의하는 강사, '야한밤에'에서 멋진 식탁을 연출하는 푸드 코디네이터 이유주씨의 말이다. 푸드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미적감각과 감각을 키우라고 강조한다.

"제가 초원 위에서 파티를 의뢰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먼저 어떤 연령층의 손님이 오느냐, 어느 시간대나부터 생각해요. 음악도 알아야 하고 주위 배경과 테이블의 색깔, 식기, 그릇의 모양도 잘 어울려야겠죠. 그릇 위에 음식을 놓는 모양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해요!"

보통 작업은 2-3일이 소비된다. 음식을 주문해야 되고, 그릇이나 식기 등을 협찬받아야 한다. 협찬이 안되면 테이블

Strawberry

푸드코디네이터



TV나 영화 CM의 식품에 관련된 연출이나 요리전문잡지에서 활동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실은 푸드코디네이터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푸드라이터, 레스토랑 프로듀서, 테이블코디네이터, 와인 어드바이저, 플라워 코디네이터, 그린 코디네이터 등 많은 세부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푸드 코디네이터가 구분되어 활동영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푸드 코디네이터의 영역이 구분되어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일본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전문직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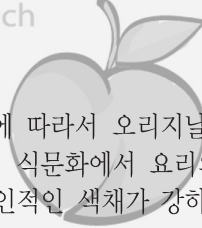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푸드 코디네이터를 굳이 구분한다고 한다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요리에 어울리는 식기를 골라 보기 좋게 담고, 그에 어울리는 소품을 곁들이는 일에 국한되지만, 푸드 코디네이터는 이를 포함하여 음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연출합니다. 즉, 푸드 코디네이터의 영역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푸드 코디네이터는 음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는, 즉 요리연구가, 테이블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다이어트 컨설팅, 레스토랑 프로듀서, 메뉴개발, 상품개발, 식품기획, 푸드 저널리스트(푸드 라이터), 티인스트럭터, 라이프 코디네이터, 와인 어드바이저, 플라워 코디네이터, 그린 코디네이터 같은 명칭과 세부영역으로 나뉘어져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역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연구가 - 요리연구가의 주업무는, 기획테마에 따라서 오리지널 레시피를 고안하고,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 담는 일입니다. 즉, 식문화에서 요리의 기본 레시피만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인만큼 개인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테이블 코디네이터 - 식탁 위에 올라오는 모든 물건의 색, 소재, 형태 등의 구성을 생각하여 맛있는 음식을 보다 맛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식공간 연출가입니다. 테이블 코디의 기본은, 식탁에서 식사를 즐기는 사람을 의식하여, 식탁 위의 것 뿐만 아니라, 방의 인테리어, 음악, 창문의 풍경, 빛, 바람의 흐름, 조명, 기온 등 신체에 느껴지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테이블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 코디네이터



Lemon

Turnip

Peach

Carrot

Piment

Pepper



테이블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

인간, 시간, 공간을 5WH에서 고찰

는 것입니다.

누가(WHO) 먹는가?

먹는 이의 연령층에 따라 음식의 기호는 물론 테이블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중장년층은 시선을 낮게 하고 전통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젊은층은 캐주얼한 취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HOW) 먹는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눌 경우는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대인원이 즐기고 싶은 경우라면 입식이 가능한 뷔페식의 테이블 코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와(WITH) 먹는가?

인간관계에 따라서 앉는 위치가 결정됩니다. 친구끼리는 대면형으로, 연인끼리는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는 상좌, 하좌가 예의에 맞는 것입니다.

언제(WHEN) 먹는가?

식사 시간대에 따라 음식이 다르고, 식사 소요시간도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어디서(WHERE) 먹는가?

먹는 장소에 따라서 준비가 다릅니다.

디자인의 기본은 규칙, 계절, 기분(3K)

규칙: 테이블 위의 그릇배치는 규칙이 있습니다. 민족, 말, 연령이 달라도 먹기 쉽고, 아름답고 신체에 맞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WHY) 먹는가?

물리적인 영양보급을 위해 조식을 먹을 때는, 기운을 내기 위한 색의 사용과 그릇사용을 통해서 정신적인 영양보급을 촉진시키고, 축하의 기분을 연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분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색상을 조성해야 하

계절, 행사: 사람과 사람의 교감이란, 공통 인식의 소유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계절이나 행사가 공통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테이블 위에 계절 음식이나 꽃 등으로 표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 연령에 따라서 감동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계절을 개개인이 느끼는 다른 색으로 연출함으로써, 각각 다른 테이블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요리와 그릇의 관계는 풍토, 풍미, 풍류(3풍)

풍토: 토지, 계절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여 어떻게 조합해야 몸에 좋고,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절의

소재를 능숙하게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미: 재료를 어떻게 조리, 조미하는가에 따라서 용기가 달라집니다. 즉, 연한 맛과 진한 맛의 차이에 따라 그릇의 바탕색을 교체해야 하며, 소스색에 따라서도 접시의 색이나 문양이 고려되어지는 것입니다.

풍류: 담은 법과 서비스법도 요리나 장소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인분씩 담은 경우와 큰 접시에 전부 담아서 각자 덜어 먹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일본에서 푸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3인(후쿠다 리카, 나가오 토모코, 다카야마 나오미)은, 차세대 푸드 코디네이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푸드 코디네이터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식문화를 심화, 향상시킬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보기보다는 육체적 노동이 많은 만큼, 인내심과 체력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컨트롤 할 줄 알아야 한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결혼이나 연령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만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걸맞는 요리 제안이나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항상 창작요리를 제안할 줄 알아야 하며, 레시피의 재활용은 피하도록 한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곤란한 의뢰가 들어와도 지혜를 짜서 요리를 궁리할 줄 알아야 하며, 테마에 모순이 있을 경우, 확실하게 지적할 용

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각자의 경험을 소중히 여겨 그것을 요리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한 일처리를 습관화 해야 한다.

자신이 없거나 자기 스타일이 아닌 잡지를 더 많이 접하도록 해야 한다.

주위사람에게 바보취급을 당하더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과감히 시도할 줄 알아야 하며 반복을 통하여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남은 소재를 이용하여 응용,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일종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같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해서 카메라맨에게 일임하는 것은, 푸드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동일한 것이다. 물론, 푸드 코디네이터가 담거나 조리법에 관한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촬영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자원봉사 소양교육 안내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도내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5대 영역 중 하나인 봉사활동을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봉사학습의 과정 안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소양을 갖춘 청소년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청소년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실시기간: 2004년 3월 ~ 7월
2. 접수기간: 2004년 3월 ~ 7월
(강의일정 조정을 위해 선착순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교육대상: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4. 교육내용: 가. 자원봉사의 개념
나. 청소년자원봉사의 의미
다. 자원봉사활동 영역 및 프로그램
라. 자원봉사자의 자세 등
5. 교육시간:
가. 참여학교의 희망시간을 최대한 반영
나. 봉사활동 소양교육 소요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학교요청이 있을 시 2시간까지 연장 가능

6. 확인서 발급:

교육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서발급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귀 교의 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내 용	가입절차	비 고
http://cn.youthvol.net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청소년 회원으로 가입 ③ 봉사활동 안내/신청 클릭 ④ 해당학교 소양교육 클릭 ⑤ 신청하기 클릭	~ 3/31까지 사용가능
http://www.bongsai.ok.kr	① 홈페이지 접속 ② 청소년 회원으로 가입 ③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클릭 ④ 해당학교 소양교육 클릭 ⑤ 신청하기 클릭	4/1일부터 적용

7. 기 타: 가. 봉사활동 소양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나. 봉사활동 소양교육 후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다. 교육당일 결석학생을 체크하시어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된 학생 명렬표를 주시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누락자에 대한 확인작업에 사용코자 하오니 정확한 교육인원 명단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학생의 인적사항은 확인서 발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8. 문 의: 가. 기 관 명: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나. 연 락 처: ☎ 736-9003~4, fax 733-1984
다. 답 당 자: 운영요원 한난신

감사합니다.

B

